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후보 3인에 듣는 포부·정책·공약

“500만 광주광역경제권 구축 에너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강기정

◇공통질문 -민선 자치시대,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광주, 전남·북을 아우르는 자립경제권을 만드는 ‘500만 광주광역경제권’을 구상했다. 광주광역경제권을 조성해 한국전력 이전으로 본격화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빛그린산단 자동차 생산기지,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반드시 해내겠다.



주요경력 ▲고흥 출생(54) ▲광주 대동고·전남대 전기공학과 졸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17·18·19대 국회의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후보 경선 문재인 후보 종합상황실장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을 앞두고 대책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주도해 도심공원 확보를 위한 개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공원 접근성 강화 등 공공성 확보 3대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앙공원은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의견은? 도시철도 2호선은 그동안 찬반 논란만 있었을 뿐 무인자하철의 안전 문제가 달랑 2량뿐인 열차가 광주시민의 수송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없었다.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검증해야 한다. 대중교통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공공교통강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로드맵과 향후 계획은? 먼저 광주 군 공항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식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항이전 및 개발용 광주시 지방채권을 발

도심공원 개발, 공공성·환경보존 원칙 갖고 추진해야

5·18정신 계승·시민공동정부 구체화 하겠다

지역발전 소홀?...국비융액, 광주재정 큰 도움 줘다

행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채권 매입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광주시가 사업을 직접 시행 ▲연기금 원금 및 약정이자 상환 ▲개발수의 시민위원회의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 전북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비전은? 최근까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자문했다. 그동안 사·도간의 나눠 먹기식 사업이 추진되면서 광주와 전남·북의 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 국가에너지산업거점화, 광주·민·군 공항 이전 및 배후도시 건설과 같은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확장했다.

◇개별질문 -문화 도시 광주를 위한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 계획대로 창작·제작 기능을 중심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지부진했던 7대 문화원 조성사업은 현행 5대 5인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정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

-광주는 여당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지? 문재인 당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소속성장론을 완성하고, 경제, 노동, 환경 분야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야당과 협상을 펼쳤다. 야당의원들과 광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 광주발전을 위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정 사상 최초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던 것처럼 국회의 협조를 구해 광주를 발전시키겠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평도 있다. 대안은? 먼저 386출신 정치인들이 대부분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주자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 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앞두고 있는 지금 5·18정신은 우리의 미래 삶을 규정하는 소중한 정신이다. 광주의 미래 인재들 특히 청년 기업가들과 정치적 인재들이 전국적 수준에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움 것이다.

-‘광주 정신’의 계승과 발전 방안은? 광주정신은 5·18항쟁에서 비롯된 나눔과 희생,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정신은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의 초석이 됐다. 5·18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만드는 데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시민공동정부를 구체화하겠다.

-지역의 발전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예산과 회계,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정신은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의 초석이 됐다. 5·18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만드는 데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시민공동정부를 구체화하겠다.

“센트럴파크·빛의 타워 건립 광주 문화수도 허브 만들겠다”

양향자

◇공통질문 -민선 자치시대,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광주에 역동성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광주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또 충분한 기회가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규모 있는 기업을 광주에 유치해야 한다. 또 그랜드비전을 빨리 착수해 광주의 동력을 마련해 한다. 또 ‘광주 센트럴파크’와 ‘518미터의 빛의 타워’의 건립 비전을 공약으로 내놨다. ‘획기적인 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결국 광주의 역동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주요경력 ▲화순 출생(51)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석사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수석연구원, 부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을 앞두고 대책은? 시민 클라우드 펀딩과 광주시 재원을 매칭, 공원부지 자금을 마련하고 개발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작은 공원 조성 프로젝트’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지역공원 정비 프로젝트’의 사례와 같이 광주시민들이 클라우드 펀딩을 조성하고 광주시의 재원과 매칭해 공원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의견은? 도시철도 2호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계획은 주민들의 편의와 더 큰 광주의 비전속에서 체계적으로 계획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 그랜드디자인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광주 도시교통 인프라를 늘리고 광주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광주 도시전체의 가치를 키워 나간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로드맵과 향후 계획은? 클라우드 펀딩·시 재원 매칭 도심공원 개발 재원 마련

도시철도 2호선, 주민 편의·광주 그랜드디자인 연계 추진

행정경험 부족?...기업가 출신 완전히 다른 광주 만들 것

광주 군 공항과 광주공항 이전은 ‘더 큰 광주’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대신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에 대비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제노선 다변화로 무안국제공항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광주송정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설립해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광주와 전남, 전북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비전은? 과거 광주와 전남북은 대한민국의 전체 변화를 이끌어 왔다. 새롭게 광주의 비전을 다시 세울 후보, 차세대 호남을 이끌 젊은 씩이 시장이 돼야 한다.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 센트럴파크’와 ‘518미터 빛의 타워’ 건립 계획은 광주를 ‘문화관광수도’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문화관광수도’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이 힘들고, 일자리 마련이 쉽지 않는 광주는 물론 전남북에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개별질문 -선거 슬로건이 ‘완전히 다른 광주’다. 완전히 다른 광주는 어떤 광주인가? 이번 선거는 ‘새로움과 변화’를 바라는 선거다. ‘젊은 기득권 정치’에 맞서 양향자만의 ‘완전히 다른 광주’를 말한다. 기존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완전히 다른 광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양향자만의 새로움으로 이번 선거를 승리하고 비전 있는 광주를 만들겠다. 양향자는 내일의 광주를 바꿀 미래를 위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위대한 정치의 도시 광주에 ‘완전히 다른 광주’라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경제인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은? 이번에 ‘광주 센트럴파크와 518미터 빛의 타워 건립 비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부산항 미래비전과 비교되는 광주의 미래비전이다. 여의도공원 면적 5배에 이르는 규모의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에 518미터 타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 광주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일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센트럴파크’와 ‘518미터 빛의 타워’ 건립에 약 1조 4000억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부산은 부산항만 프로젝트에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프로젝트다. 국비를 포함해 해외자본 유치, 민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의 재원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정치 철학과 계획이 있는지? 다른 후보에 비해 젊고 참신한 양향자 이 시대에 광주를 이끌 리더라고 자부한다. 세상을 바꾼 ‘기업가들’은 점점 젊어지고 있다. 40대 젊은 총리는 이제 세계적 추세다.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새로운 비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고 있다.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 광주시장이 된 분들과는 달리 기업가 출신이다. 행정 경험 많은 분들이 광주 시장을 했는데 그동안 광주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경선에도 관료와 국회의원을 하신분, 그리고 3선 정치인이 시장에 나섰다. 이제 광주에서의 리더십도 달라져야 한다.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 12조원 일자리 뉴딜정책 추진”

이용섭

◇공통질문 -민선 자치시대,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주요경력 ▲함평 출생(67) ▲학다리고등학교·전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8대·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노무현 정부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관세청장·국제심판원 원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을 앞두고 대책은? 광주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 25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매입하지 못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대상 공원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일부는 비공영 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받아야 하는데, 비공영 시설 부분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의견은? 제가 꿈꾸는 광주는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모이는 200만 이상의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기에 때때로 지하철 2호선이 필요하다. 다만 안전성, 재정적자,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조금씩 추진해 보자는 속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통합차원에서 서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로드맵과 향후 계획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종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자도생하면 경제적 낙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내 조기 이전할 것

군 공항 이전부지에 스마트시티·테마파크 등 조성

일자리위서 설계했던 일자리 정책 광주서 성공시키겠다

“광주정치 떠날 것” 발언과 다른 행보? 큰 틀에서 이해를

이다. 군 공항 이전부지에는 스마트시티와 함께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광주의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 전북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비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호남지역은 마지막 남아 있는 자연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자연자산이다. 광주시장이 되면 전남지사, 전북지사가 함께하는 호남상생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광주, 전남, 전북 관광벨트 구축, 공동발전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 가겠다.

◇개별질문 -호남은 여전히 낙후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됐는데 광주시장으로서의 역할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했다. 저는 국정경연, 경제 전문성, 그리고 중앙에서 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모두 쏟아 경제력 낙후를 해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끈끈한 15년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광주시민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 그리고 지방분권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 방안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지지체가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설계했던 청년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광주에서부터 성공시키겠다. 광주는 앞서가는 도시들을 따라잡는 추격자 전략이나 넘버원(Number One) 전략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광주만의 고유하고 유일한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온리원(Only One)전략이 해답이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점함을 발굴하여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 수 있다. 빛그린산단-도시철도산단-광주역-광주공항을 미래산업 및 국제관광도시에 특화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해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전두환 집권시기, 청와대 근무 이력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매우 유감이다. 선거 때만 되면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문제는 2010년 광주시장 출마 때 5·18단체로부터 철저히 검증받았고 당시 5·18구속부상자회는 ‘전혀 문제없다’고 발표까지 했다. 지난 11일에도 5·18관련 3단체가 문제없다고 발표했다.

-“광주정치를 떠나겠다”는 기존 발언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광주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드렸다. 그것이 광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다. 광주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